제9강 칸트: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상상력의 시간 도식 I

(1~3교시)

칸트의 시간론

1. 칸트의 종합과 시간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시간론의 핵심은 시간이 인식 주체의 내면과 외부의 인식 대상 전체를 일관되게 관철하면서 인간의 의식 변화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방식으로 균일하게 흐른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동시성(Zugleich)은, 동일한 시간 계기성(Nacheinander)은 다른 시간들을 떠받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시간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들어 있는 선험적(초월론적) 인식론을 어느 정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칸트의 시간론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칸트는 감성(Sinnlichkeit)과 지성(또는 오성 Verstand)을 구분하지요. 감성은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자체(Ding an sich)인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감각적인 직관(sinnliche Anschuung)을 수동적인 방식의 종합을 통해 형성해 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은 감성에서 형성된 감각적인 직관을 개념과 연결시켜 인식(Erkenntnis)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합니다.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데에는 인식 대상을 일정하게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고정시키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 대상들을 구분해서, 이것은 칠판지우개이고 이것은 교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탁에 속한 다리 네 개를 따로 구분해서 대상화하기도 하고, 색깔이나 모양만을 따로 구분해서 대상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러 대상들을 인식적으로 구분해서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인식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각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이 칠판지우개를 빙글빙글 돌리면 돌릴 때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현출(현상 Erscheinung)이라 하고, 그것들을 양적으로 한꺼번에 지칭하기 위해 다양한 현출들(mannigfaltige Erscheinungen) 또는 다양(das Mannigfältige)이라고 합니다. 이 다양한 현출들이 하나로 종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인식 기능을 하는 우리의 심성이 도대체 분산되면서 순간순간 따로 놀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어떤 인식도 애당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www.artnstudy.com

둘째로는 설사 바깥에서 종합 통일된 대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식하는 나의 내적인 심의 능력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보는 의식과 조금 있다가 같은 것을 본 의식이 만약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따로 논다면 두 의식 각각은 다른 것을 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선험적(초월론적) 통각(transzendentale Apperzeption)이라고 하는 인식 능력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원리를 설정합니다. 말하자면, 선험적 통각은 자기 통일적인 기능을 한없이 끌고 가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요건에 대해 칸트는 세 가지 종합, 즉 직관에서의 각지(覺知, Apprehension), 구상 작용에서의 재생(Reproduktion)의 종합, 개념에서의 재인(再認, Rekognition)의 종합을 제시합니다.
각지의 종합은 직관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간적인 계기(nacheinander)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출들을 일단 한데 끌어 모으는 종합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으로부터 직관의 통일성이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다양성의 관취(貫取 Durchlaufen)와 그러한 관취의 집결(Zusammennehmung)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작업을 나는 각지의 종합이라 부른다."(A. 99)

이렇게 집결시키되 그 현출 다양은 어디까지나 계기적인 방식으로 나란히 연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각지의 종합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을 한데 관취하고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지 않고 앞서 지나갔던 현출 다양의 부분을 다시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완전히 새로운 현출이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고, 그럴 경우 관취하고 집결시킬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지나간 현출 다양의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종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그 능력이 감성에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관에 있어서 현재를 지니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는 능력"(B. 151)인 구상력(또는 상상력 Einbildungskraft)을 설정합니다. 지금 주어지는 현출 다양의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간 현출 다양의 부분들을 재생해서 지금의 현출 다양과 결합하는 종합을 재생의 종합이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각지의 종합은 재생의 종합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각지의 종합은 재생의 종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각지의 종합은 모든 인식 일반(경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아프리오리한 인식 또한)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인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구상력의 재생의 종합은 심성의 선험적인 작업들에 속한다."(A. 102)

아무리 현출 다양을 재생하고 시간적인 일렬로 관취하여 집결시킨다 할지라도 방금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출 다양의 차원에서 동일한 하나의 대상으로 되는 비약이 있어야 합니다. 칸트는 이를 위해 개념에서의 재인의 종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셈과 수를 들먹입니다.

www.artnstudy.com

“가령 수를 헤아리는 경우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단위들을 내가 순차적으로 보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단위들을 하나씩 계기적으로 보탬으로써 양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수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의 개념은 종합의 이러한 통일의 의식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A. 103)

칸트가 통일된 대상의 성립과 개념의 성립을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개념이라는 말은 이미 그 스스로 우리를 이러한 생각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은 다양이고 차례차례 직관되는 것이고 또한 재생되는 것이 하나의 표상으로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A. 103)

말하자면 개념의 출발은 현출 다양이 하나의 표상으로 통일될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세 가지 종합에서 시간이 근본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본래 시간이 현출 다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칸트는 애초 시간을 감성의 형식이라 했습니다. 감성이 물자체로부터 촉발될 때 이미 시간적인 방식으로 촉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촉발된 내용인 현출 다양은 시간적인 운명을 타고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시간적인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은 칸트의 시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구에 따르면 1차원적인 선적인 계열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직관은 아무런 형태도 주지 않는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족을 유추들을 통해 대신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간경과(Zeitfolge)를 무한히 나아가는 하나의 선으로 표상한다. 이 선에서는 다양(das Mannigfaltige)은 1차원만을 갖는 하나의 계열(Reihe)을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의 속성들로부터 시간의 모든 속성들을 추론한다.”(A.33)

시간적인 운명을 타고났기에 현출 다양은 아차 하는 순간에 순간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적인 운명을 타고났기에 계열화되어 일렬로 배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배열을 하는데 이미 직관에서의 각지의 종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각지의 종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상(Einbildug)에서의 재생의 종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시간의 부분들을 하나로 엮는 개념에서의 재인의 종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www.artnstudy.com